

## 美 수입물가: 헤드라인은 하락, 코어는 4 년래 최고 재가속

2026.08.18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7 월 미국 수입물가는 표면적으로는 두 달 연속 하락(전월 대비 -0.4%, 전월 -0.3%)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누그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방향이 정반대인 두 흐름이 섞여 있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칠 지표가 아니다. 하락분의 대부분은 연료 가격이 -7.2% 떨어진 데서 나왔는데, 이는 5 월에 연료값이 +12.1% 급등했던 것이 되돌아온 결과일 뿐이다. 반면 정책 판단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코어 부분, 즉 연료를 뺀 수입물가는 오히려 전월 +0.1%에서 이번 달 +0.4%로 오름폭이 커졌고, 1 년 전과 비교한 상승률도 +4.5%로 2022 년 6 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석유만 제외한 또 다른 코어 계열도 +0.3%로 역시 플러스를 나타내, 정의는 다르지만 두 코어 지표 모두 오름세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다만 이 코어 상승을 곧바로 소비자물가에 대한 위협으로 연결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번 상승을 이끈 것은 반도체·산업기계·항공기 같은 자본재(+0.9%)와 식품·사료·음료(+0.9%)인데, 정작 소비자에게 가까운 소비재(자동차 제외) 물가는 0.0%로 보합에 머물렀다. 즉 상류 단계의 원가는 오르고 있지만 그것이 최종 소비 단계까지 전가되는 흐름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통상 수입물가에서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로 파급되는 데 한두 달에서 석 달가량 시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전가 여부는 8~10 월 지표가 나와야 판가름 날 문제다. 또한 이번 상승이 관세 때문인지, 환율 때문인지, 아니면 해외 현지 가격 자체가 오른 것인지는 이번 자료만으로는 구분되지 않는다.

현재 연준은 정책금리를 3.75%(목표 3.50~3.75%) 수준에서 동결한 higher-for-longer 국면을 이어가고 있고, 최근 근원 개인소비지출물가도 3.3%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코어 수입물가 재가속은 가격 방향만 놓고 보면 분명히 부담스러운 쪽이다. 다만 소비재 전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원인 분해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지표 하나로 정책 판단의 무게중심이 곧바로 바뀔 만한 재료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정리하면 가격 방향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정책적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것이 현재 판단이며,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가까운 회의(9 월)의 동결 전망이나 연말 인상 가능성 구도를 당장 흔들 수준은 아니다.

앞으로는 8~10 월 소비재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최종재 코어 항목의 흐름을 통해 이번 상류 원가 상승이 실제로 하류까지 전달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다. 아울러 8 월 들어 국제유가가 반등하고 있어 이번 달의 연료값 하락이 다음 달에는 되돌려질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 발행일             | 핵심 메시지                                                                                                                                                                                                       |
|-----------------|--------------------------------------------------------------------------------------------------------------------------------------------------------------------------------------------------------------|
| 2026-08-18 (이번) | 7 월 미국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4% 하락하며 2 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6 월도 개정치 기준 -0.3%였으니 표면적으로는 물가 압력이 누그러지는 그림이다. 하지만 이 하락은 사실상 연료 가격 한 항목에서 비롯됐다. 연료 수입물가가 7.2% 급락했는데, 이는 5 월에 12.1% 급등했던 것이 되돌려진 결과에 가깝다. 유가 요인을 걷어내고 나면 그림이 |
| 2026-07-17      | 월간 수입물가 모멘텀이 뚜렷이 둔화(+2.1% → +0.3%)한 가운데 수출은 첫 월간 하락(-0.6%)을 기록했다. YoY 기저효과(Import +7.1%, Export +10.2%)는 여전히 높아 에너지·원자재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신호와 구조적 코어재화 강세의 구분이 필수.                                                 |
| 2026-06-16      | 수입물가 YoY 6.7% (2022 년 8 월 이후 최고)로 구조적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나, 월별 기준으로는 수입·수출 모두 증속이 둔화 신호를 보이며 사이클 정점 근처 가능성 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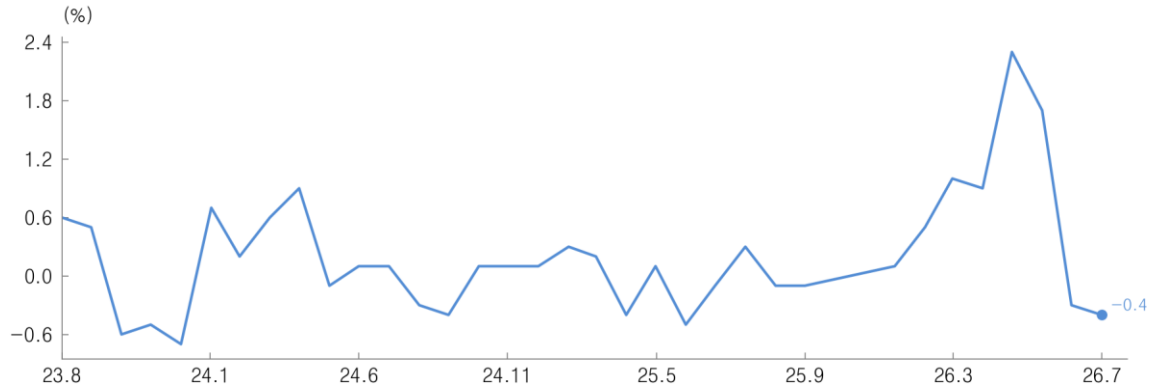
7 월 수입물가: 헤드라인과 코어의 역주행

| 지표               | 전월 대비 | 전년 대비  | 맥락                              |
|------------------|-------|--------|---------------------------------|
| 전체 수입물가 (헤드라인)   | -0.4% | +5.9%  | 2 개월 연속 하락, 연료 급락이 견인           |
| 연료 제외 수입물가 (코어)  | +0.4% | +4.5%  | 2022.6 이후 최대 상승폭, 전월 +0.1%에서 확대 |
| 석유 제외 수입물가       | +0.3% | +4.5%  | 다른 정의의 코어 지표도 플러스 유지            |
| 연료 수입물가          | -7.2% | +25.2% | 5 월 +12.1% 급등분이 되돌려진 결과         |
| 자본재 수입물가         | +0.9% | -      | 반도체·산업기계·항공기가 코어 상승 견인          |
| 식품·사료·음료 수입물가    | +0.9% | +0.2%  | 전월 -0.1%에서 반등, 계절요인 가능성         |
| 소비재(자동차 제외) 수입물가 | 0.0%  | -      | 상류 원가 상승이 하류로 전가 안 됨            |
| 중국산 수입물가         | +0.8% | +2.7%  | 2008 년 7 월 이후 최대 월간 상승폭         |

핵심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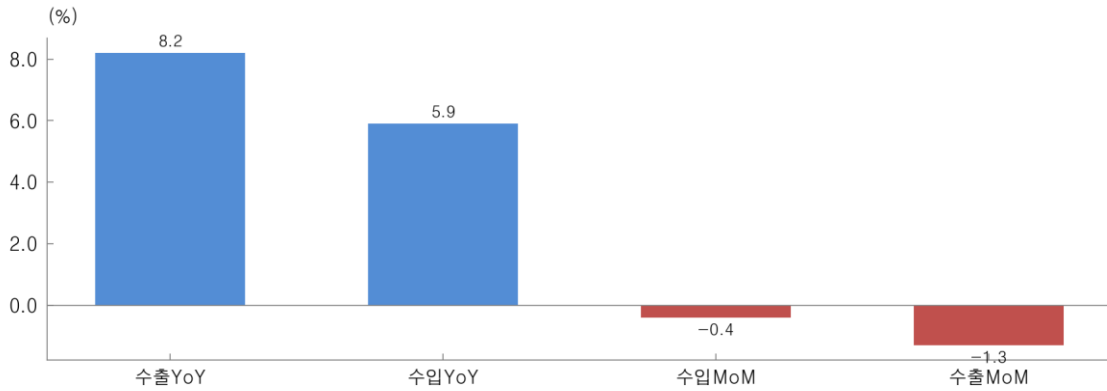
| 지표            | 값   |
|---------------|-----|
| 수출 전월대비 (%)   | 8.2 |
| 수입물가 전월대비 (%) | 0.4 |

### 미국 수입물가(전월비) 3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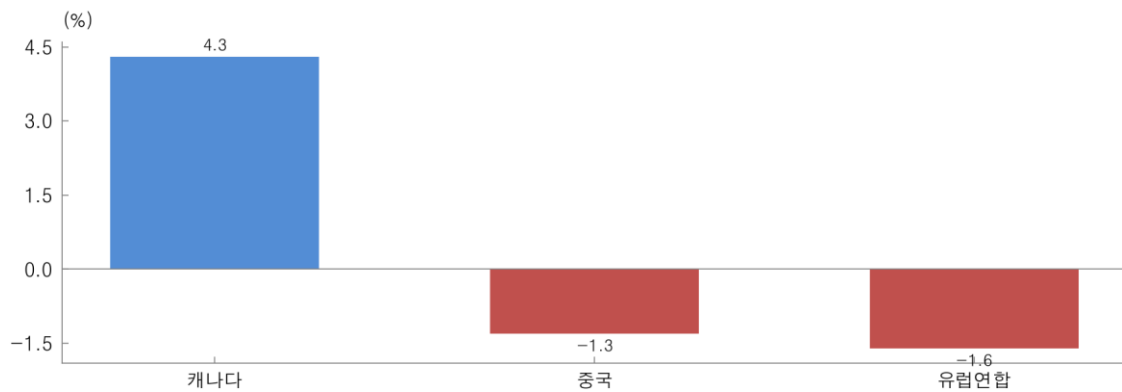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미국 수출입물가 월간·연간 변화율 비교(7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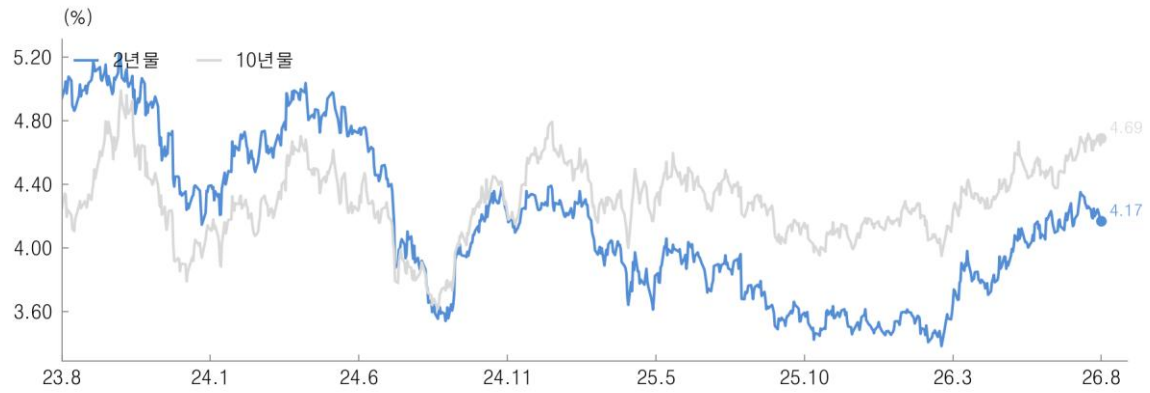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국가별 교역조건 변화(7 월, 전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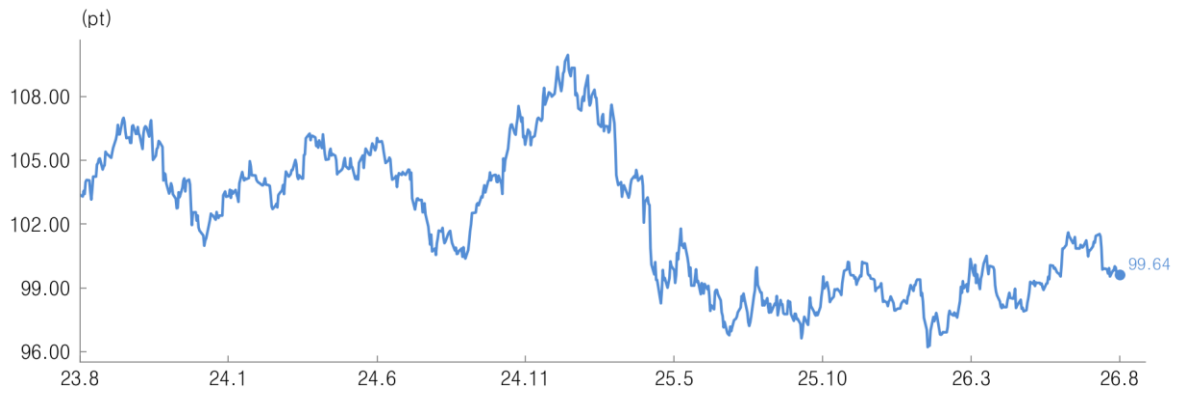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미국 국채금리 (2년·10년)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달러지수(DXY)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